

# “잘 생긴 책 만드는 게 내 일이죠”

제본 기술의 최고봉 ‘종이 재단사’로 20년째 일하고 있는 최성식씨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한 인쇄소 환경에서 하루종일 종이 자르는 일을 하는 최성식씨(40, 백왕인쇄문화 근무). 그의 정식 직업 명칭은 “제본에서 최고 기술자로 쳐주는 ‘종이 재단사’다.

## 단순노동의 3D 직종이지만

인쇄에 들어갈 종이를 규격에 맞게 잘라서 제공하는 것이 그의 일인데, 대형인쇄소라 하더라도 재단사는 한 명밖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인쇄 물량이 많을 때는 그야말로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 한다. 최씨의 작업과정은 주로 5킬로그램은 족히 나가는 4×6인치 한 판을 들어 절단기에 대고 2분의 1로 자르는 일이다. 기계 주변에는 하루동안 잘라야 할 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최씨 혼자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 싶다. 최씨는 “3, 4년 전만 해도 재단 보조가 있어서 물량을 대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단순 노동에다 몸이 쉬 피로해지는 3D직종이라 그런지 젊은 사람 찾기가 어렵다”며 그 고됨을 호소한다.

그렇지만 주문량을 채우기 위해 일을 대충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게 최씨의 원칙이다. 아무리 시간에 쫓겨도 그는 종이를 절단기에 넣기 전에 입고된 종이의 질을 꼼꼼히 체크한다. 종이 질이 나쁘면 나중에 잉크가 잘 먹지 않아 인쇄상태가 영 안 좋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재단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운동 단계가 끝나면 곧 최씨의 기술적인 노하우가 발휘되기 시작한다. 이 작업은 옆에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종이 재단사로서의 섬세한 테크닉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패하기 쉬운 과정이다.

“종이를 절단기에 들이댈 때 단면이 고르게 들어야만 책의 규격이 딱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규격에 맞게 조정해 놓은 절단기에 종이만 들이면 되는 것처럼 보일겠지만 실제로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 무거운 종이를 들어서 단면이 고르게 하는 것도 일이고, 또 좌우 길이가 꼭 맞게 절단기에 넣어야만 인쇄 규격에 맞는 종이 잘라지죠.”

이 작업을 잘못해서 규격에 어긋난 종이 나오는 것을 현장에서는 “귀가 났다”고 표현한다. 귀가 난 종이는 파지 처분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종이 낭비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것을 재단사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 파장은 의외로 커진다. 파지 처분을 안하고 인쇄에



## 제본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25년이 되는 최성식씨는

제본 기술의 최고봉이라는

‘종이재단’의 미술사다. 보기에

어려울 것 없는 종이재단도

섬세한 테크닉이 필요하다.

단면이 고르게 들어가야 책 규격에

꼭 맞고 책 모서리가 매끈한

‘잘 생긴’ 책이 나올 수 있다.

넘어가게 되면 균일한 인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완제품인 책으로 나오더라도 각 페이지의 인쇄면이 들쭉날쭉하고, 그 모양새가 “폼이 나지 않는다”는 게 최씨의 말이다.

## 모양새 제대로 내는 게 종이재단

“가끔 서점에 나온 책을 보면, 재단을 잘못해서 책 모서리가 매끈하지 않은 책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책은 책장에 꽂혀도 보기 흉합니다. 속된 말로 ‘병신 꼴 났다’고 하는데 제본하는 사람들은 재단에서 잘못됐다는 걸 한눈에 알아채죠. 저는 책 내용은 몰라도 모양새만은 제대로 내주는 일이 종이 재단사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제본소 일을 한 최씨는 울



최씨와 유달리 친한 오피스 기술자들. “휴일에는 셋이서 바람도 쐬고 고기도 구워 먹고 휘돌아오면서 피곤한 걸 탁탁 털어버려요.”(위)  
20년간 숙달된 재단 솜씨를 보여주는 최성식씨. 해를 거듭할수록 재단사라는 직업이 천직으로 느껴진다고 말한다.(아래)

해로 그 경력이 25년이나 된다. 정식 재단사가 되기까지 최씨는 도제식 수업을 거쳤다. 제본을 하다가 재단 보조를 하게 됐고, 그 과정을 3, 4년 버텨서 재단사가 된 것이다. 예전에는 기계가 좋지 않아서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보조자리를 거치지 않으면 선뜻 기계를 맡기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도 제본소에 가면 10명 중 4명은 손가락 하나가 없다고. 그나마 최씨가 사용하는 기계는 자외선 감지능력이 있는 전자식이라 안정감이 있다고 한다.

25년이나 이 일에 매달렸지만 종이 재단사는 하루의 결근도 용납되지 않는다. 어쩌다

일을 쉬게 되면 미리 그 다음날 물량을 잘라놔야 인쇄가 순조롭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전업을 해서라도 재미없는 이 직업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에 전기 용접이나 그의 허드렛일을 해봤지만 “배운게 이 일뿐이고, 가만히 생각하면 나한테는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28살에 결혼한 최씨는 7살짜리 딸 ‘지나’와 두달 난 아들 ‘병천’을 두었는데 귀가해서 딸아이가 쪼르르 달려오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다고 웃는다.

—배은희 기자